

KAL 국내항공료 5%인하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5% 내리기로 발표하고 시험에 들어갔다. 국내 항공요금 이하는 86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에따라 서울~제주노선 요금은 현재 4만6천3백원에서 4만 4천원으로, 서울~부산노선은 3만6천2백원에서 3만4천4백원으로 내리는 등 국내선 24개 전노선에서 8백원~2천3백원이 인하되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일을 기준으로 2월 1일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이미 구입한 사람에게는 탑승수속대에서 차액을 환불해 주

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초과예약 폐지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항공기의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초과 예약을 없애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아시아나의 이번 서비스강화 방안은 국내선 요금을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초과예약을 없애 일단 예약한 고객은 1백% 탑승을 보장하도록 하고 아침 8시 이전 모든 운항편에는 아침식사 대용으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다.

또 항공기내 기존 좌석을 6석 정도 철거, 좌석간 간격을 1-2인치 가량 넓히기로 했다. 어린이 승객 서비스도 강화해

주말에만 제공하던 선물과 엽서를 주중에도 제공키로 했다.

**美 팬암항공
파산 4년만에 부활**

美 팬암항공(PA)이 파산 4년여 만에 부활, 다시 하늘을 날게됐다.

지난 91년 파산하면서 문을 닫았던 팬암사는 올 여름부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마이애미를 연결하는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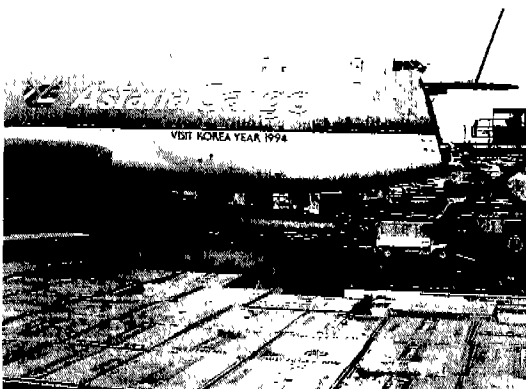
새로 태어난 팬암사의 마틴 서그루 사장은 이날 팬암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팬암은 팬암만의 독특한 낮은 요금정책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로 팬암에 첫발을 들여놓아 파산 직전 부사장까지 올랐던 서그루 사장은 뉴욕-로스앤젤레스 간 1등석 왕복 항공료를 600~700달러, 이코노미 클래스는 500달러나 그 이하로 책정, 서비스할 것이며 1년후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암사는 에어버스사의 A 300기 3대를 전세내 국내선에 투입하고 연말까지 최소한 5대의 항공기를 추가 확보,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 후안등으로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팬암은 또 유럽 및 남미의 중소 항공사들과 제휴, 국제선과의 연결망을 갖출 방침이다.

팬암사가 과거의 이름을 되찾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요금인하 정책에 맞서 서비스를 더욱 개선했다.



4년만에 재기한 팬암항공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93년 팬암의 회사명과 로고를 매수했던 플로리다 출신의 사업가 처크 콕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미상무부 차관과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를 역임한 콕은 이번에 2백70만달러를 출자하면서 이사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팬암은 1927년 플로리다의 키 웨스트와 쿠바의 아바나를 연결하는 노선에 첫 취항한 이래 국제민간항공 산업을 이끌었던 미국의 날개였다.

그러나 70~80년대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88년의 스코틀랜드 로커비 폭탄 테러사건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문을 닫았었다.

아시아항공사 여객기 구입 러시

아시아 항공사들이 최근 몇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의욕적인 항공기구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10년 전세계 항공수요의 50%를 아시아 지역이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시아

각국 항공사들은 경쟁적으로 신형 항공기 구매주문을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05년까지 11조원(139억3,000만달러)을 투자, 150대의 신형 항공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미 지난해 11월 보잉 777-200B 여객기 77대를 127억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싱가포르 항공은 또 2000년까지 단거리 노선 투입용으로 승객 150~200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여객기 15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필리핀 항공도 24대의 에어버스를 구입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항공은 보잉사와 40억달러의 항공기 구매상담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에 대해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는 93년 1억1,200만명이었던 수요가 2000년에는 2억명 이상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경 주1회 항공사고 가능 항공기 증가가 원인

2010년께는 매주 한번 꼴로 민항

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잉사 관계자가 미국립연구위원회(NRC)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보잉사의 항공기 안전 기술자인 토머스 머레이는 NRC의 항공기 안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59년에서 93년까지 중량 6만파운드 이상의 민항기가 모두 2억7,000만회 이(착)륙해 512건의 동체손실 사고가 났고 1만9,298명이 희생됐다면서 이는 100만회 이(착)륙시 평균 1.9회의 사고가 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84년에서 93년까지는 171건의 동체 손실 사고가 발생, 5,526명이 사망했다면서 최근 급증하는 민항기 이용률을 고려할 때 2010년께는 매주 한번 꼴로 항공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항 사고의 54.5%가 착륙과 지상 접근 단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양양국제공항, 올 10월 착공

강원 양양군에 건설될 영동권 신공항의 이름이 양양국제공항으로 정해져 오는 10월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양양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을 확정, 양양군 손양면 동호 학포 도화리 일대 1백85만평에 활주로2개, 여객청사(4만4천6백67평), 주차장(3만8천1백82평,4천대)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공항은 99년 2월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에서 열리는 동계아